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국가 지원 전략 변경 불가피

구상·추진 일정 조만간 윤곽 기능 구체화 후 업체 제안 접수 업체·장소 따라 국가지원 재설정 “트램은 자체 시비로라도 건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과정, 그리고 민선 8기 출범 초기 광주 최대 이슈로 떠오른 복합쇼핑몰 유치 구상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2일 출범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광주에 입점하게 될 복합쇼핑몰의 기능, 성격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달 안에 논의를 마치고 추진 일정 등 발표가 예상돼 입점 경쟁에 뛰어들 업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TF는 한 달 동안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시 정기 인사 등 영향으로 논의 과정이 다소 길어졌다.

시는 일정이 확정되면 특정 기간 업체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사전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가칭 '더현대 광주'를 건립하겠다고 선언한 현대백화점그룹, 광주에 이미 백화점을 운영 중인 신세계와 롯데 등 국내 '유통 빅3'는 물론 외국계 기업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더현대 건립이 전방·일선방직공장 터 개발 계획의 하나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이와는 별개로 복합

쇼핑몰 유치 논의가 이뤄진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2곳 이상의 복합쇼핑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반영에 따라 광주시가 요구할 국가 지원 사항은 앞으로 결정될 입점 업체, 장소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18일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의 회에서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디지털 기반 광역 통합 유통센터(3000억원), 트램·도로 등 연결망 구축(6000억원)을 위해 9천억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예산규모와 트램 건설 등 내용면에서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서, 일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다만 농성역에서 신세계백화점, 전방·일선방직을 거쳐 캠퍼스도아구장을 연결하는 트램 건설에 대해서 정부지원이 없다면 자체 시비로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복합쇼핑몰 등 대형시설 입점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지역 인프라 확충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교통·환경 영향 대책 등 민간이 해야 할 부분은 민간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투명·공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특혜 논란도 없도록 할 것"이라며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판매 중심에서 문화, 놀이를 차츰 중요시하는 경향을 잘 반영해 경쟁력 있는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재단)

윤 대통령 “폭우 희생자 명복...불편 겪은 국민께 죄송”

정부서울청사서 대책 회의 수위 모니터 시스템 등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관련 대책회의’에서 “향후 이런 기상이변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고, 국가 재난 대책도 그에 부합하게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악구 신림동 침수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한 일을 언급하며 “저지대 침수가 일어났던 지하 주택에 사는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볼 보듯 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하천과 수계 관리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가의 모든 물길에 대한 수위를 늘 모니터하고 시뮬레이션해서 즉각 경고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국가·지방하천 분류와 지류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물길에 대한 ‘홍수 위해 경고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등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물 재해 예보·대응 체계를 구현하

겠다는 국정과제 이행을 거듭 약속했다.

AI 홍수 예보 시스템을 활용하면 빠른 시간에 더 많은 지점의 홍수 예방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통합적인 홍수 경보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또 환경부와 서울시는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대책으로 지하 저류조와 터널의 건설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과거에 준비했다가 시 행정권이 바뀌면서 추진하지 못했던 배수조와 물 잡아주는 지하터널 등도 광범위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명칭을 행정안전복지센터로 바꾸고, 안전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업무를 맡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 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안 재가 새 정부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11번째 임명

“치안 공백 장기화 방지 어렵다” 윤 청장 “경찰 중립성 지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후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안을 재가한데 이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사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새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은 11명 째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제경찰,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을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했다.

윤 청장은 이날 임명장을 받은 후 동작구 현충원을 참배하고 바로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 등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을 격려했다. 역대

경찰청장 대부분이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임식을 행한 것과 달리 이를 생략하고 곧장 ‘현장 행보’를 택했다.

이런 가운데 윤 청장이 경찰국 신설 등에 따른 행안부의 ‘과도한’ 간섭을 막아내고,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지키면서 균형을 잡을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은 이날 임명 직후 취임식을 생략하고 일선 경찰서를 찾아 수해 복구 등 현안을 챙기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취임사를 통해 “경찰권은 엄격한 견제와 감시 아래 행사돼야 하지만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돼선 안 된다. 어떠한 바람에도 중립을 잡고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경찰의 존재 이유인 만큼 든든한 민생안전을 확보하겠다”며 “법질서는 국민 안전의 기초이며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집회 시위 현장에서도 균형 있고 일관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변화에 선도적으로 대비하며 진취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당정, 수해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수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배수펌프를 합동 점검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차후 재해 상황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총리실·금융위원

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함께 이같이 논의했다. 박정호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지난 8~9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수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기저

부에선 긴급복구수요에 대해 긴급 지원하고, 또 요건에 맞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법에서 정한 피해 금액의 2.5배를 넘어야 하는 요건이 있고, 시군구와 읍면동의 경우 구분해서 선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양천구 신월동 빗물저류 시설(대심도 터널)과 같은 대규모 지하저류 시설을 강남구 등에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투어나우: 062-575-8019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2년 임인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